

보도 일시	2023. 1. 30.(월) 12:00 2023. 1. 31.(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 30.(월)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팀 장 박진희(043-870-8201)
<총괄>	인력수급전망팀	담당자	부연구위원 김수현(043-870-8230)
<공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기획팀	담당자	팀 장 유재훈(02-6009-3220)
「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철강·반도체 ‘증가’, 섬유 ‘감소’, 기계·조선·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유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주요 업종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유지	유지	유지	감소	증가	증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주)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수출 증가에도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 감소에 따른 내수가 감소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전 세계적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제조업 생산의 위축이 기계 업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축소에 따른 영업활동 재개, 미국, 중국, 신흥국 등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개선 투자 등은 2023년 상반기 기계 업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화, 친환경 관련 기기 및 설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내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 감소의 영향으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축소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예상

○ 2023년 전 세계 선박 발주는 38.2백만 CGT로 전년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선가 및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신규 선박 발주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 국내 조선 업종은 2023년에도 IMO의 탄소배출 저감 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수요 증가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양플랜트 발주 역시 국내 조선 업종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여건 개선과 함께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전자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전자 업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한 스마트폰 판매는 2023년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미엄 제품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가전 제품, PC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 경기 침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전자 업종 고용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4> 섬유 : 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생산 감소와 함께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과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소싱 국가의 섬유 소재 수요 감소 및 달러 강세 기조 진정으로 섬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에 따른 보복 소비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내수는 금년에도 증가가 예상되지만 고금리, 고

물가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내수 증가,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증가 요인이 있으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섬유 수요 감소,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섬유 생산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섬유 생산 감소, 생산 설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5> 철강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고용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도 국내 공급 차질로 인한 내수 전환 물량의 기저효과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금리,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내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 업종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철강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생산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하지만 고용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6> 반도체 : 설비 투자 증가와 함께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 지속 전망

- 2023년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11% 감소한 1,150억 달러(반도체협회 추정)로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내수는 실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고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축소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설비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감소와 함께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도 상반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상황 개선, 신차 출시,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심리 약화와 고금리에 따른 신규 수요제한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나, 그동안 출고지연으로 누적된 대기수요가 해소되고 전년도 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내수는 소폭 증가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자동차 업종은 생산이 증가하지만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및 가격 하락 속에 모바일·IT 제품 신수요 증가와 폴더블, 자동차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에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의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5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9> 건설 : 건설 투자가 소폭 증가하지만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예상

-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다.
- 2023년 상반기에도 금리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23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공공 토목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 투자 증가에도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2022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10> 금융 및 보험 : 성장세가 약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의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던 은행업에서는 2023년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순

이자마진 상승폭 축소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세 약화, 대손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명보험 산업은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에도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한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에 대한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상승, 조달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 산업 역시 경제 성장률 하락, 금리 상승, 증시 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 및 보험업은 성장세 약화, 수익성 하락과 함께 전년 동기 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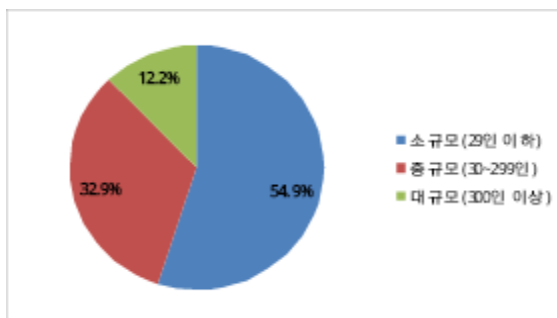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붙임 :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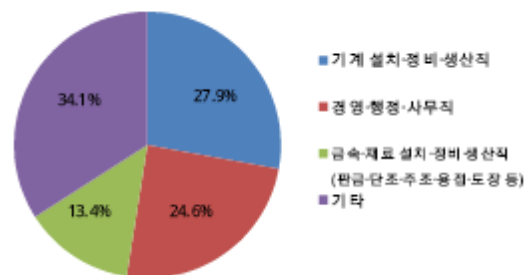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설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기반산업으로 냉동공조기계, 건설기계,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농기계, 로봇 등으로 구성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2년 하반기 현재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790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5.3%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7.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39.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2%)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화성시(8.4%), 경기 시흥시(4.1%), 경남 김해시(3.7%), 부산 강서구(3.3%), 경남 창원시 성산구(3.3%), 인천 남동구(3.1%),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7.9%), 경영·행정·사무직(24.6%),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13.4%) 등으로 구성

● 기계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769천 명) 대비 2.6%, 20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1.3천 명, 채용인원 33.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8.1천 개
- 기계 업종의 미충원율은 35.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p 높고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19.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9.8%)',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4%)'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8.1%),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21.4%), 제조 단순직(17.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35.0%), 경남(15.2%), 충남(7.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3.6%로 나타남

경기전망

- (수출) 해외 영업활동 재개와 더불어 미국, 중국, 신흥국 등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개선 투자가 기계 수출의 증가 요인이거나 인플레이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해외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인도 등 정부 주도 건설 인프라 투자 계속될 예정
- 산업플랜트, EPC 등 사업 발주 재개에 따른 기계 부품 수요 증가
-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생산 위축은 기계 수요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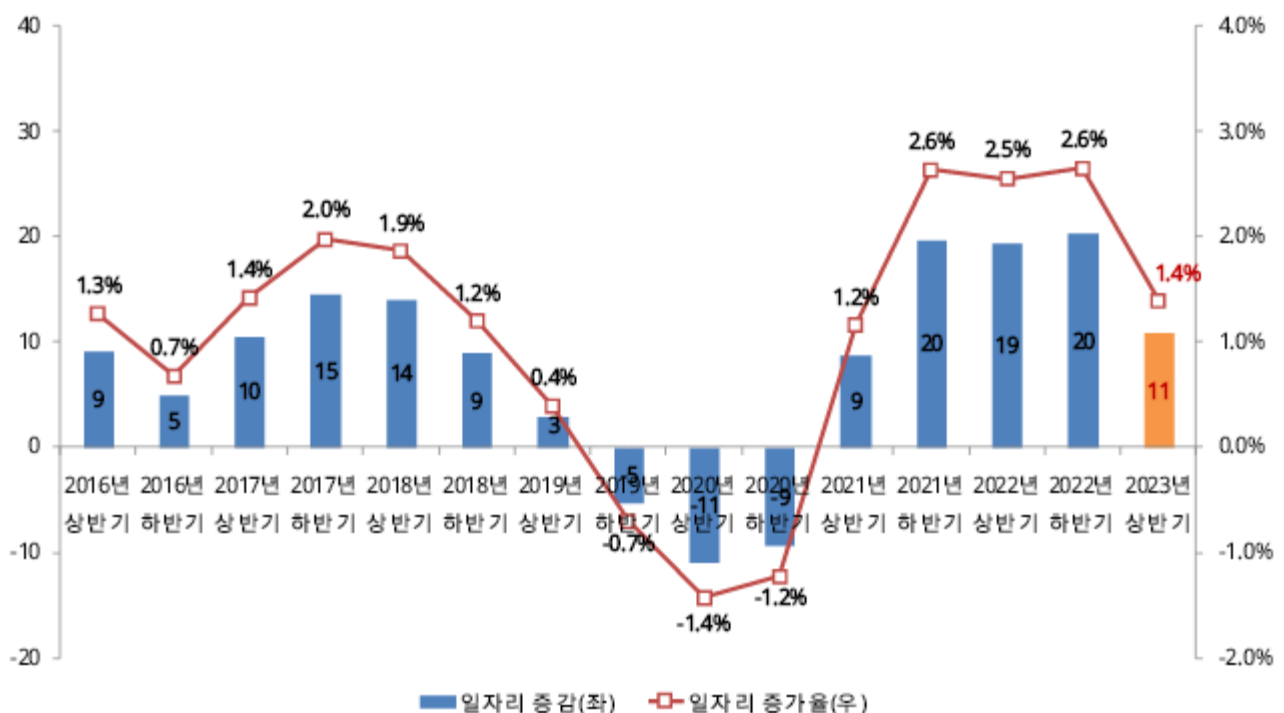
● (내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내수 감소 전망

- 제조업 자동화, 친환경 정책과 함께 로봇, 고효율 기기/설비 수요 증가
-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 전반 생산 감소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기계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0.4	-0.7	-1.4	-1.2	1.2	2.6	2.5	2.6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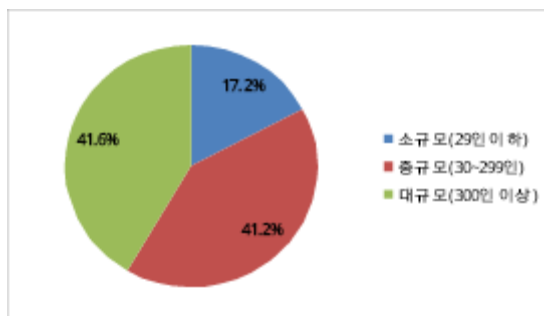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기계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기계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경남, 충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선

조선 업종은 크게 구분하여 상선(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과 해양구조물(심해저에 매장된 원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추출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조물)로 구성되는 국가 주력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2년 하반기 현재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9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0.7%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남 거제시(34.8%), 울산 동구(30.1%)에 전체 조선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남 영암군(13.3%), 부산 영도구(3.4%), 경남 창원시 진해구(2.4%) 등에도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29.0%), 경영·행정·사무직(22.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4.4%) 등으로 구성
- 조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100천 명) 대비 0.5%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5.0천 명, 채용인원 3.2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1.8천 개
 - 조선 업종의 미충원율은 36.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20.9%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7.4%)',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7%)',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15.7%)'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4.6%), 건설·채굴직(14.7%), 경영·행정·사무직(14.0%)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울산(42.0%), 경남(27.4%), 전남(26.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4.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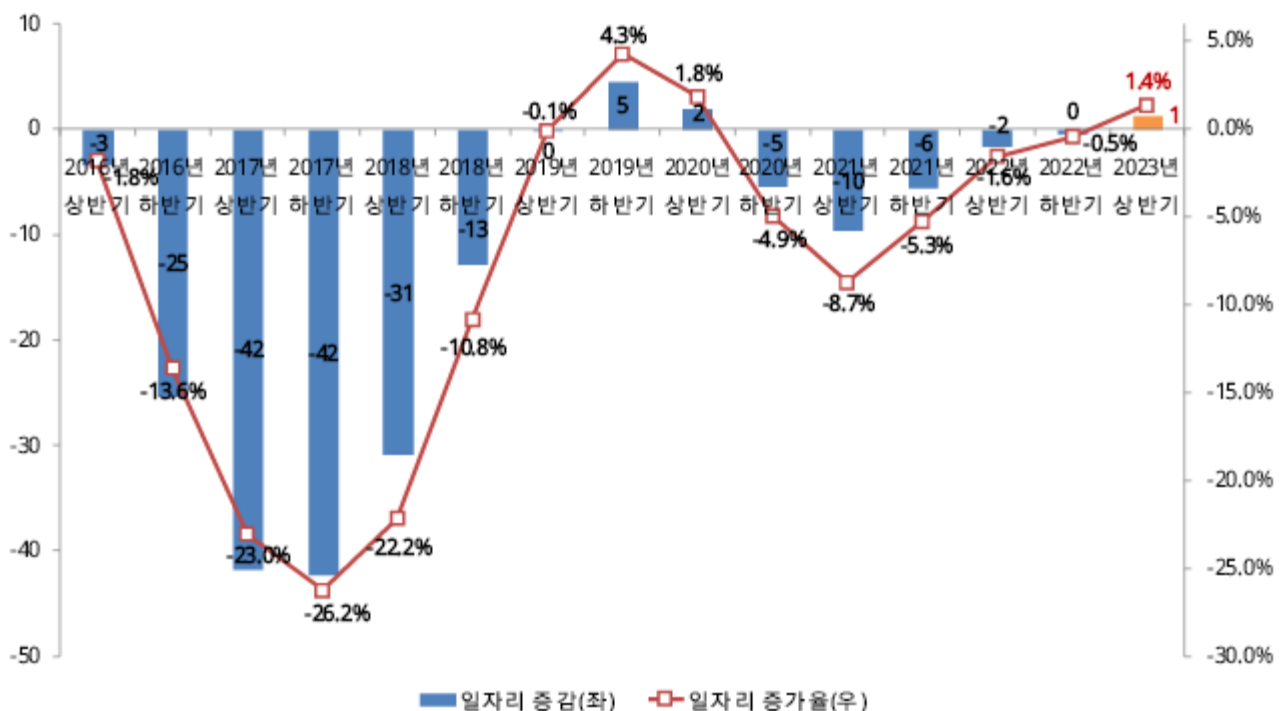
경기전망

- (산업전반) 2023년 전 세계 발주는 38.2 백만 CGT로 전년 대비 9% 감소. 높은 선가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발주 둔화가 전망됨
 - 선종별로는 탱커, 벌커, LPG 운반선 발주 강세, 반면 LNG 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발주 약세 전망
 - 고금리,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신조발주 투자 위축 우려
- (국내 조선업) 2022년 국내 수주량은 약 16.2 백만 CGT이며 점유율은 38% 수준으로 중국(48%)에 이어 2위를 기록
 - 23년에도 IMO의 탄소배출 저감 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암모니아/메탄올/수소/바이오퓨엘/LNG/전기추진 등)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기술 우위인 국내 조선 업종 수혜가 예상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따른 해양플랜트 발주 증가 추세에 따라 국내 조선 업종 수혜 예상됨
- (수출) 2023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0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조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0.1	4.3	1.8	-4.9	-8.7	-5.3	-1.6	-0.5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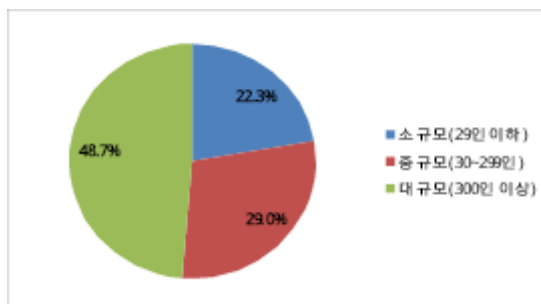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조선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 보면 경남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전남 등의 지역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자

전자, 전기, 제어, 정보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기술, 개발기술, 생산기술, 영업기술을 적용하여 휴대폰, 컴퓨터, TV, 대형가전, 이차전지, 센서 등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및 기술을 구현·보급하는 산업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근로자 현황

- 2022년 하반기 현재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746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5.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3%), 전기장비 제조업(32.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9.3%)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18.3%), 서울 영등포구(10.2%), 경기 용인시 기흥구(5.3%), 경기 화성시(3.7%), 경기 안산시 단원구(3.6%)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26.5%), 경영·행정·사무직(24.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기술공학직(14.5%) 등으로 구성
- 전자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726천 명) 대비 2.7%, 19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나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와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모두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31.4천 명, 채용인원 24.0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7.4천 개
 - 전자 업종의 미충원율은 23.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8.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9.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9.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34.7%), 경영·행정·사무직(13.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2.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41.1%), 경북(12.7%), 충북(6.4%)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1.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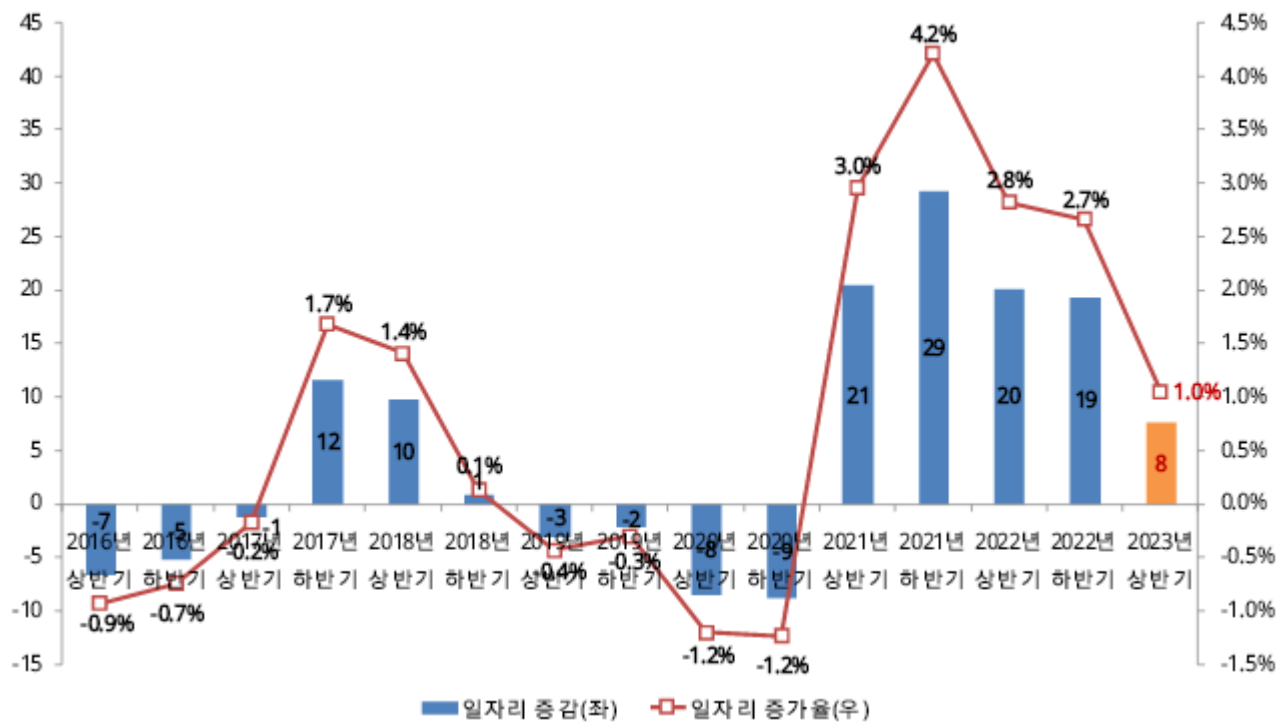
경기전망

- 전자 산업의 세계수요 회복,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주요국 긴축재정,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 IT산업군(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2023년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에 프리미엄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0% 감소 전망
- (스마트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는 거시경제 변수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 * 2023년 연간 감소율은 5.5%로 2022년 10.5% 보다 개선될 전망
 - * 출하량 : 13억 8,000만 대(3월) → 13억 140만 대(6월) 전망
- (가전) 수요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23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며, 이에 따른 가전 수출 회복세도 지연 예상
 - * 2023년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79억 달러 내외로 전망
- (컴퓨터) PC·노트북 등 전자제품 전반의 수요 감소와 더불어 고금리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으로 보수적인 서버 투자가 예상되며, 낸드 공급 과잉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세 전환 예상
 - * 2023년 컴퓨터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166억 달러 내외로 전망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전자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0.4	-0.3	-1.2	-1.2	3.0	4.2	2.8	2.7	1.0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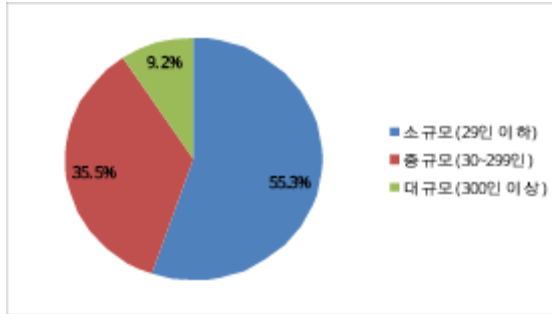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남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경기,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첨유

천연섬유, 인조섬유, 합성섬유 등을 가공하거나 가공된 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원료, 실, 직물, 염색, 가공, 의류, 산업용 섬유 등 다단계의 공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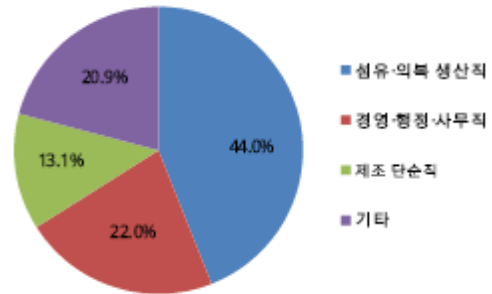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157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1.1%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62.8%),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6%)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구 서구(4.7%), 경북 구미시(3.6%), 경기 양주시(3.5%), 경기 포천시(3.2), 대구 달서구(3.1%)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4.0%), 경영·행정·사무직(22.0%), 제조 단순직(13.1%) 등으로 구성
- 섬유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160천 명) 대비 1.6%, 3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0.6천 명, 채용인원 8.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1천 개
 - 섬유 업종의 미충원율은 20.1%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5%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4.7%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42.7%)',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8.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섬유·의복 생산직(42.1%), 제조 단순직(24.7%), 경영·행정·사무직(15.8%)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는 서울(39.9%), 경기(17.1%), 경북(11.6%)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인 구인인원 비중이 31.8%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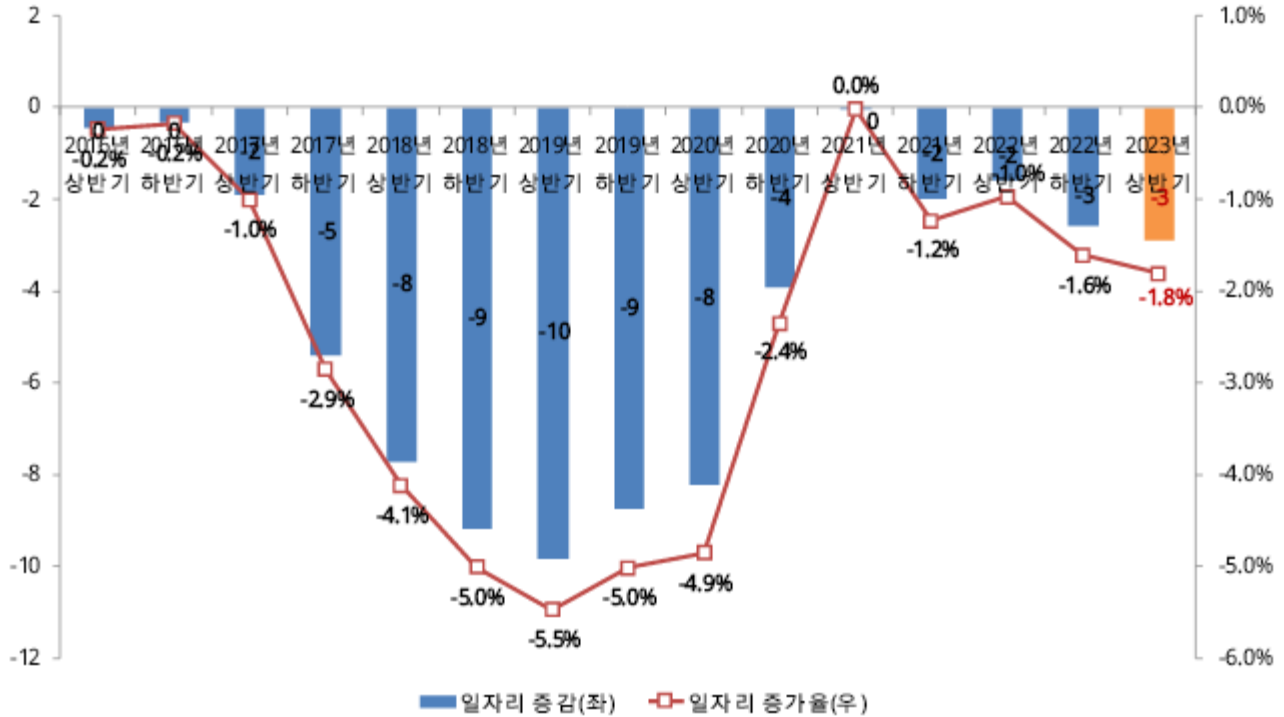
경기전망

- (수출)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과 베트남 등 주요 의류소싱 국가의 섬유소재 수요 감소 및 달러강세 기조 진정으로 수출 감소
 - 의류·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섬유소재 수요 감소와 중국, 아세안,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섬유제품(의류 포함)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 예상
 - * 2023년 상반기 섬유류 수출 전망 : 62.3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3.7%)
- (수입) 소비 양극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의류를 중심으로 수입 지속 증가
 - 중저가 의류는 베트남·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 의류 수출국에서, 고가 제품은 이태리·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 증가 예상
 - * 2023년 상반기 섬유류 수입 전망 : 97.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4.6%)
- (생산)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재편 등 증가요인이 있으나 글로벌 섬유 수요 감소, 에너지 수급 불안, 물류비 상승 등 감소요인 확대로 국내 생산 소폭 둔화
 - 의류용 범용소재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친환경 트렌드 확산 및 국내 설비 증설 등으로 리사이클소재·탄소섬유 등은 국내 생산 증가 예상
 - * 2023년 상반기 섬유류 생산 전망 : 30.6조 원(전년 동기 대비 -0.5%)
- (내수) 2022년 엔데믹으로 인한 보복소비로 금년에도 증가가 예상되나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친환경제품 구매 등 MZ세대의 가치소비 확산, 온라인 쇼핑 등으로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가처분 소득 감소 등 민간소비 제약 요인 상존
 - * 2023년 상반기 섬유류 내수 전망 : 35.8조 원(전년 동기 대비 4.5%)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감소)

섬유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하반기
-5.5	-5.0	-4.9	-2.4	0.0	-1.2	-1.0	-1.6	-1.8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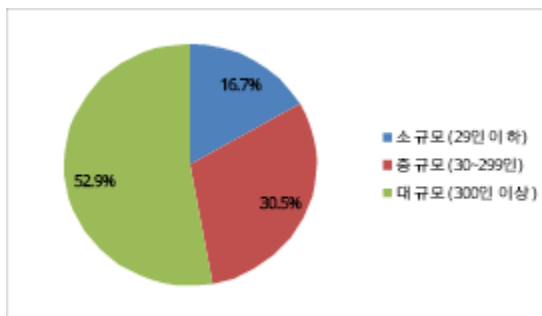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섬유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섬유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대구 등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철강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최종 철강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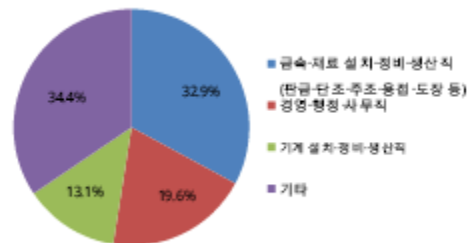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113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0.8%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24.9%), 충남 당진시(11.4%), 경남 창원시 성산구(7.8%), 전남 광양시(4.3%), 울산 울주군(4.0%), 경기 안산시 단원구(3.0%), 인천 동구(2.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32.9%), 경영·행정·사무직(19.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3.1%) 등으로 구성
- 철강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110천 명) 대비 2.9%,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2천 명, 채용인원 5.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9천 개
 - 철강 업종의 미충원율은 35.0%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1%p 낮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19.6%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30.4%)',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9%)'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38.6%), 제조 단순직(21.8%), 경영·행정·사무직(11.8%)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26.1%), 경북(18.5%), 경남(13.7%)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의 구인인원 비중이 29.2%로 나타남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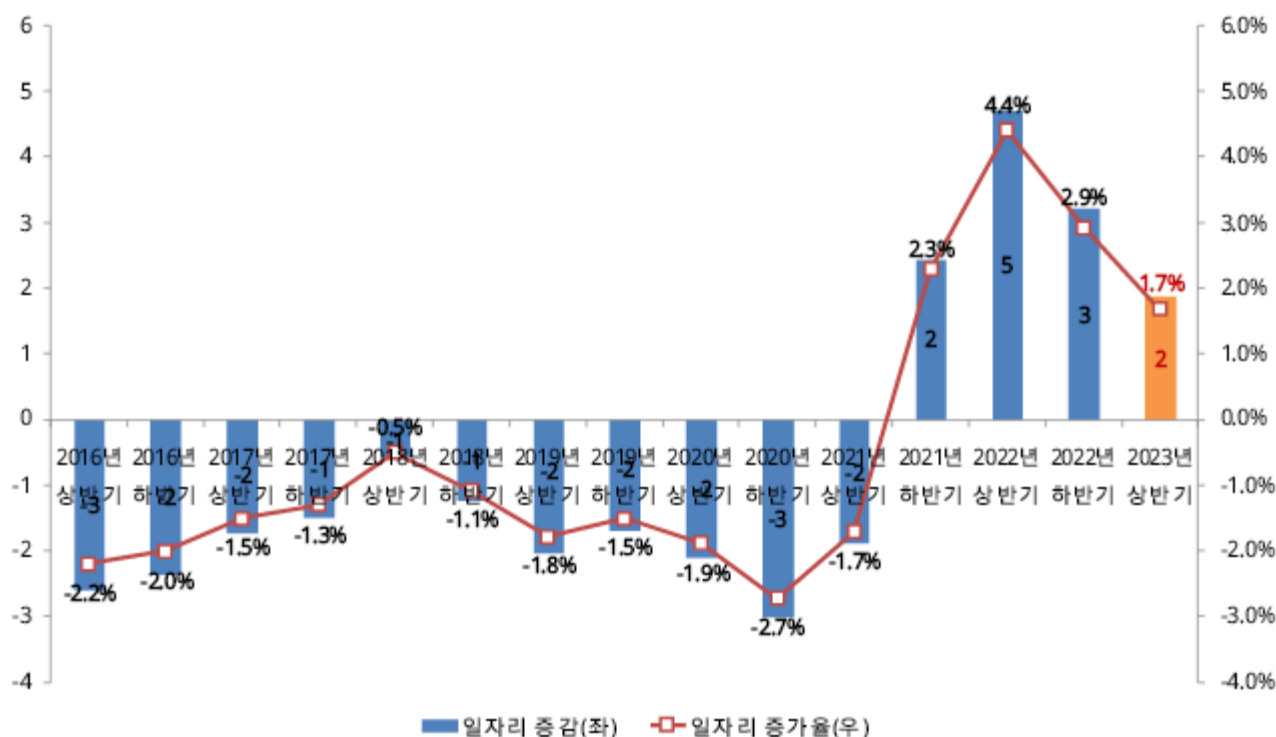
- (내수) 2022년 어려운 경영 환경 대비 금년 기저효과(2022년 $\Delta 7.8\%$)가 있음에도 내수 철강산업의 주력 수요 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부진으로 소폭 증가한 53.1백만 톤(+2.8%) 전망
 - * 국내 철강 산업별 출하 구조(2021): 건설 36%, 자동차 27%, 조선 17% 순
 - (건설)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수주 감소가 예상되며 정부의 SOC 예산 감축으로 전반적인 수주 감소가 전망됨
 - (조선) 2020년 하반기 이후 대규모 수주했던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조선 건조는 전년 대비 42.5% 증가가 전망됨. 후판, 평강 등 조선용 철강 수요 증가 전망
 - (자동차) 국내 자동차 대기 수요가 많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로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전년 대비 감소가 전망됨
- (수출) 업계의 수출 확대 노력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로 26.0백만 톤(+1.1%) 전망
 - 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전반적인 수요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철강업체 간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단, 전년도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한 물량이 있는데, 해당 물량에 대해 수출을 재개할 예정
- (생산) 전년도 공급 차질 기저효과에도 수요 위축으로 소폭 증가한 70.1백만 톤(+2.6%)
 - 2022년 하반기 태풍 피해 영향에 따른 생산 차질 기저효과로 올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단, 2023년 철강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수입) 저가 수입재 공세가 우려되나, 내수 부진으로 전년 수준인 14.1백만 톤(0.0%)

- 중국의 자국 건설 산업 부진에 따른 수출가격인하 가능성 전망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철강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1.8	-1.5	-1.9	-2.7	-1.7	2.3	4.4	2.9	1.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철강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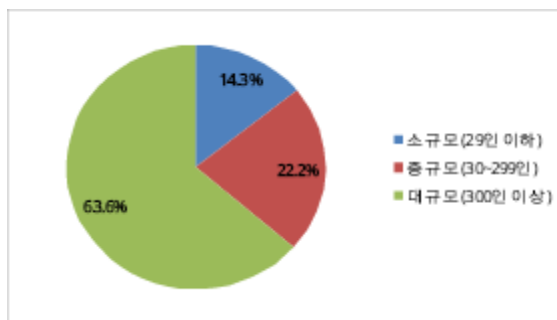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국내 수출 1위의 대표적인 국가 주력산업으로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도 반도체 장비, 재료, 설계 기업 등의 후방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 핵심 부품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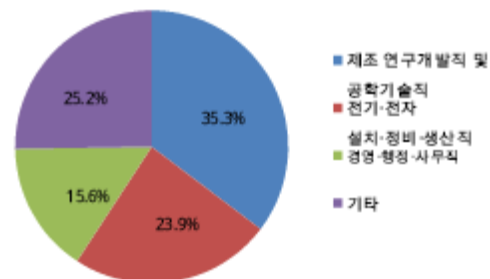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42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1.0%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9.3%)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0.7%)으로 이루어져 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이천시(23.4%), 경기 화성시(9.6%), 충북 청주시 흥덕구(6.1%), 충남 천안시 서북구(5.8%), 경기 평택시(5.0%), 경북 구미시(4.3%), 충남 아산시(4.0%), 경기 부천시(3.9%)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5.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3.9%), 경영·행정·사무직(15.6%) 등으로 구성
- 반도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135천 명)에 비해 4.9%, 7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0.6천 명, 채용인원 7.9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7천 개
 - 반도체 업종의 미충원율은 25.5%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3%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해도 10.2%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0.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9.4%)'에 이어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3.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7.6%),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17.4%)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55.0%), 인천(12.5%), 충남(10.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4.4%로 나타남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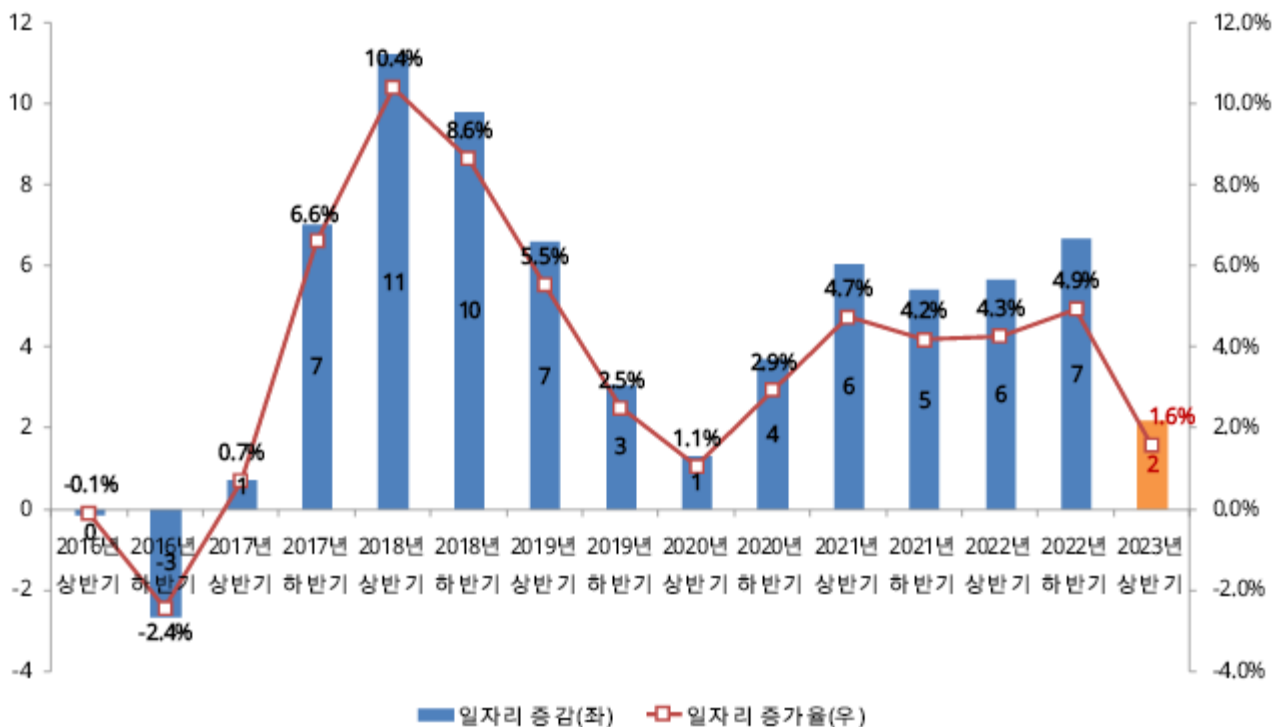
- (전 세계 시장 전망) 2023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5,400억 달러) 대비 5.6% 감소(5,100억 달러*WSTS전망)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2023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업체들의 설비투자 축소로 공급량 조절되며 가격 하락폭 둔화가 예상. 특히 주요 업체들의 공급 축소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시스템반도체) AI, IoT,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수요 확대에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파운드리) 파운드리 산업은 TSMC를 중심으로 4nm 공정의 ASP(평균판매가) 상승이 예상되나, 8인치 및 성숙 공정 수요 감소로 최근 3년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CIS 5.0% 증가) 예상
- (수출 전망) 2023년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11% 감소한 1,150억 달러(반도체협회 추정)로 예상
 - (메모리) 2023년 메모리가격 하락세 지속 예상. 업계는 투자 축소 및 감산 등으로 공급량 조절 대응·DDR5 등 수요 확대에 2023년 4분기 이후 가격 상승 전환 기대
 - (시스템 반도체 등) 파운드리 공급부족이 해소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활용이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 확대 전망

- (투자 전망) 2023년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1,632억 달러로 2026년까지 연평균 6.4% 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지속 및 전 세계적 경기 둔화로 인한 불황으로 반도체 업계는 설비 투자 및 생산 계획 축소 전망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증가)

반도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5.5	2.5	1.1	2.9	4.7	4.2	4.3	4.9	1.6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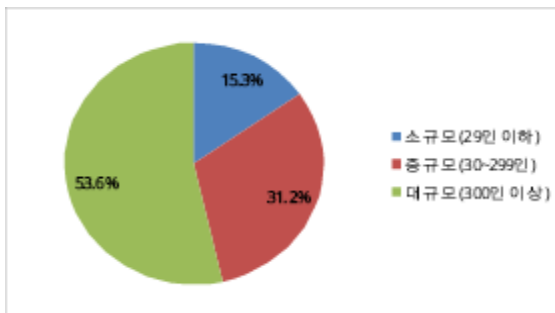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경기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자동차는 최근 안정성 및 성능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산업으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학, 섬유 등 5,000여 종류가 넘는 다양한 공업제품이 융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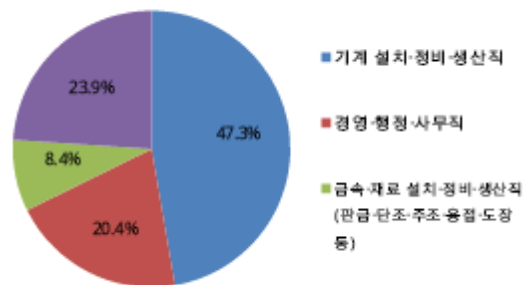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자동차 업종 근로자 규모는 385천 명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14,931천 명)의 2.6%를 차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서초구(10.7%), 울산 북구(10.5%), 경기 화성시(6.3%), 충남 아산시(5.0%), 경기 평택시(3.5%), 경남 창원시 성산구(3.4%), 경북 경주시(3.4%), 서울 강남구(3.2%) 등에 다수 위치
 - 직종별로 기계 설치·정비·생산직(47.3%), 경영·행정·사무직(20.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8.4%) 등으로 구성

- 자동차 업종 근로자는 2021년 하반기(382천 명) 대비 0.8%, 3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4.9천 명, 채용인원 10.4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4.5천 개
 - 자동차 업종의 미충원율은 30.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1%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해도 14.8%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2.3%)',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7%)',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4.4%)'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기계 설치·정비·생산직(37.3%), 제조 단순직(19.3%), 경영·행정·사무직(16.6%)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18.6%), 충남(17.4%), 경남(15.1%)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31.1%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3년도 상반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으로 생산량 증가 및 신차 출시, 친환경차 수요증가 등으로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할 전망
 -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심리 약화와 고금리에 따른 신규 수요 제한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나, 그동안 출고지연으로 누적된 대기수요가 해소되고 전년도 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증가 또는 비슷할 전망
 - (수출)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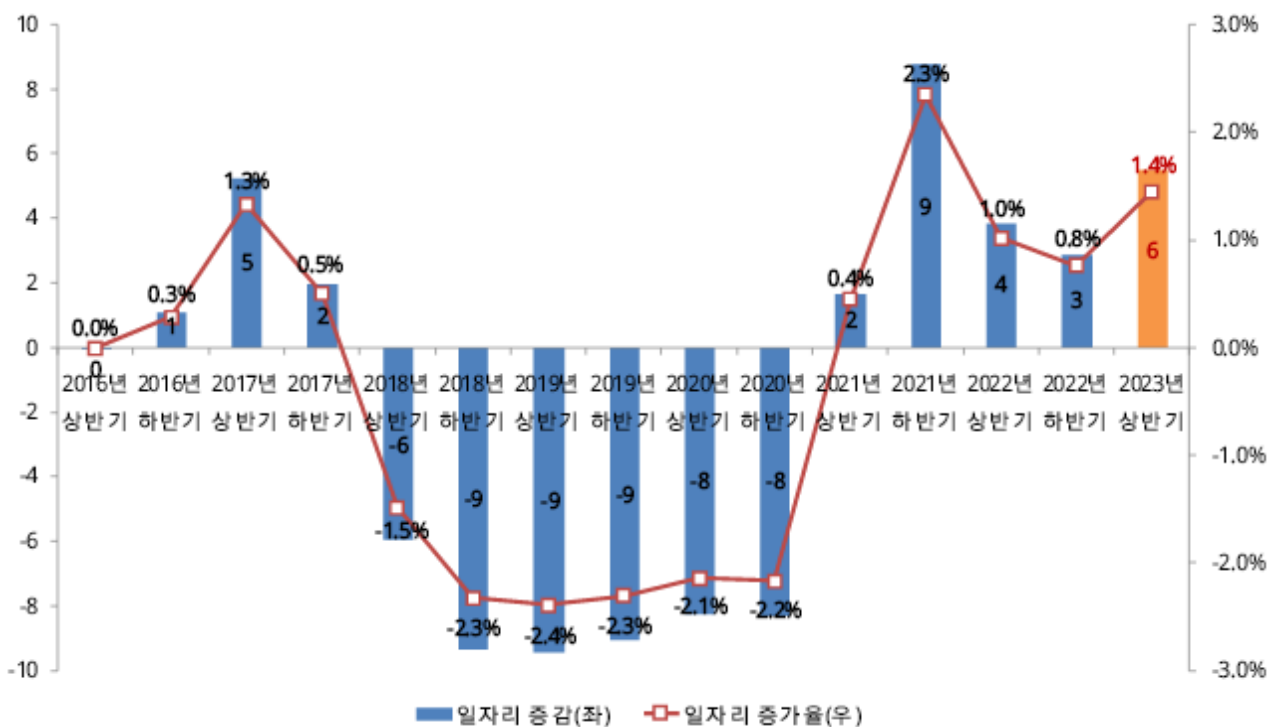
을 지속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증가 전망

- (생산)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해 소폭 증가 예상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자동차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4	-2.3	-2.1	-2.2	0.4	2.3	1.0	0.8	1.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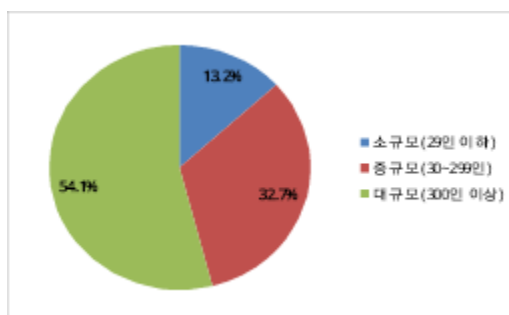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울산, 충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충남, 서울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을 선도 중인 국가 주력산업이자 IT산업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소재, 장비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패널·모듈, 장비, 부품·소재 등의 품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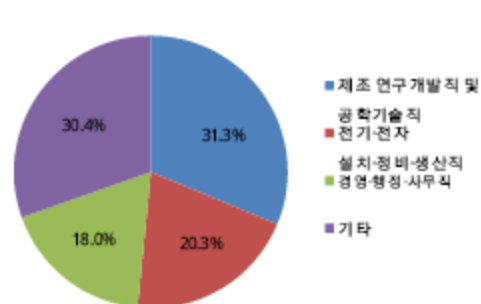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121천 명 수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4.1%로 절반 이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13.2% 수준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1.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20.3%), 경영·행정·사무직(18.0%) 등으로 구성

● 디스플레이 업종 근로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119천 명)에 비해 2.1%, 2천 명 증가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0천 명, 채용인원 3.7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2.3천 개

- 디스플레이 업종의 미충원율은 37.9%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7%p 높은 수준이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22.5%p 높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33.0%)',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3.1%)',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6.5%)'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7.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25.8%), 경영·행정·사무직(14.4%)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경기(69.5%), 충남(12.4%), 경북(7.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2년~10년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4.1%로 나타남

경기전망

● (세계시장) 2023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LCD 수요 및 가격 하락 속에 모바일·IT 등 고부가가치 OLED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1,242억 달러 전망

- (OLED) 모바일·TV뿐 아니라 IT(모니터, 노트북 등) 제품 신수요 증가와 폴더블, 자동차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시장 규모 성장(8.5%)

* OLED 시장(억 달러) : [모바일](22)332→(23)352, [TV](22)4.3→(23)4.9, [IT](22)1.2→(23)1.8

* 모바일 OLED 시장 비중(%) : [폴더블](22)3.2 → (23)4.6, [LTPO](22)25.1 → (23)28.7

- (LCD) 글로벌 수요 감소 속에 공급 과잉과 더불어 재고 증가에 따른 LCD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규모 감소(3.4%)

* LCD 시장(억 달러) : [모바일](22)82→(23)54, [IT](22)321→(23)286, [TV](22)206→(23)231

- (수출전망)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5억 달러 전망

< 디스플레이 분기별 수출 실적 및 전망(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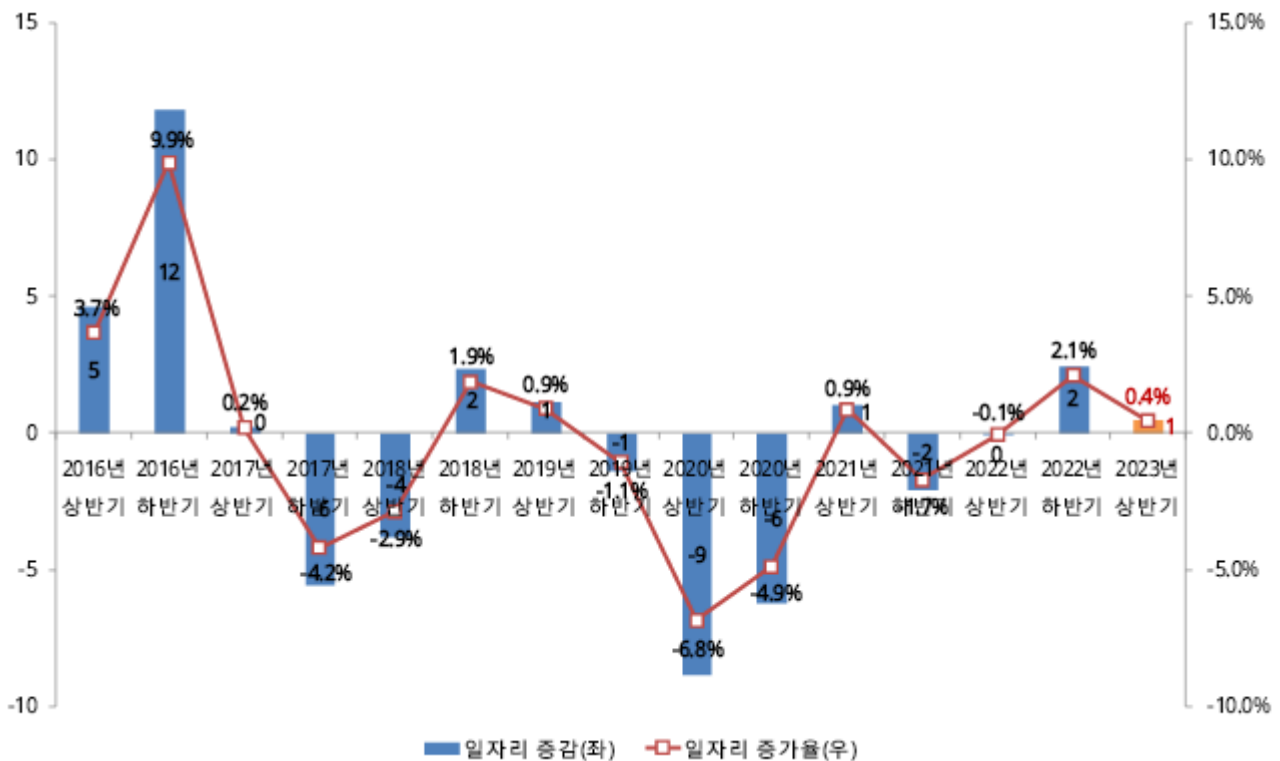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LCD	1,798	946	1,529	931	1,430	862	1,086	788	5,844	3,527
OLED	4,181	3,946	3,304	3,951	3,914	4,971	3,903	5,065	15,301	17,933
합계	5,979	4,892	4,833	4,882	5,344	5,833	4,989	5,853	21,145	21,460
(증가율, %)	(30.5)	(△18.2)	(4.7)	(1.0)	(△10.0)	(9.1)	(△20.0)	(17.3)	(△1.1)	(1.5)

* 연도별 디스플레이 수출(백만 달러) : ('20) 17,984 ('21) 21,387, ('22) 21,145, ('23) 21,460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디스플레이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0.9	-1.1	-6.8	-4.9	0.9	-1.7	-0.1	2.1	0.4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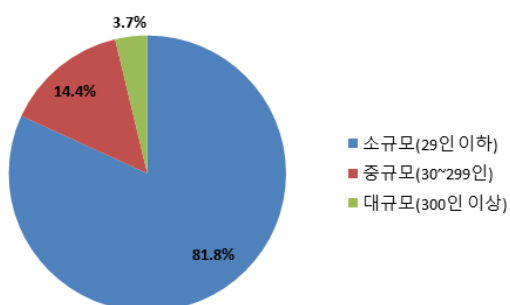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지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보면 충북 등에서 고용이 감소하지만 충남, 경기, 경남 등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

건설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항만 교량 등 산업시설의 구축에서부터 국토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내지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국가중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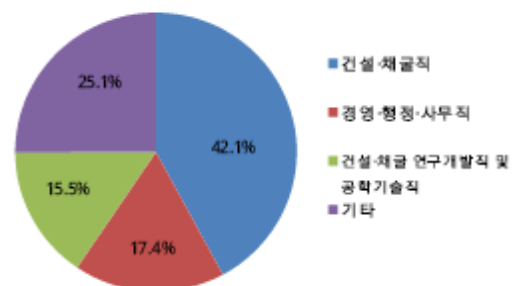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128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320천 명)의 7.5%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42.1%), 경영·행정·사무직(17.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5.5%) 등으로 구성
- 건설업 취업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2,130천 명)에 비해 0.1%, 1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164.1천 명, 채용인원 157.3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6.8천 개
 - 건설 업종의 미충원율은 4.2%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4%p 높게 나타났으며 전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11.2%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30.9%)',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8.7%)'에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7.6%)' 순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건설·채굴직(72.2%),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6.8%),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6.2%)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17.6%), 경기(16.1%), 강원(8.8%)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 인력의 구인인원 비중이 4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수준의 업무', '경력무관'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38.3%로 나타남

경기전망

- 2023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
- 2023년 상반기에도 금리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민간 부문 건설 수주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SOC 예산 감소로 인해 공공 부문과 토목 부문의 건설 수주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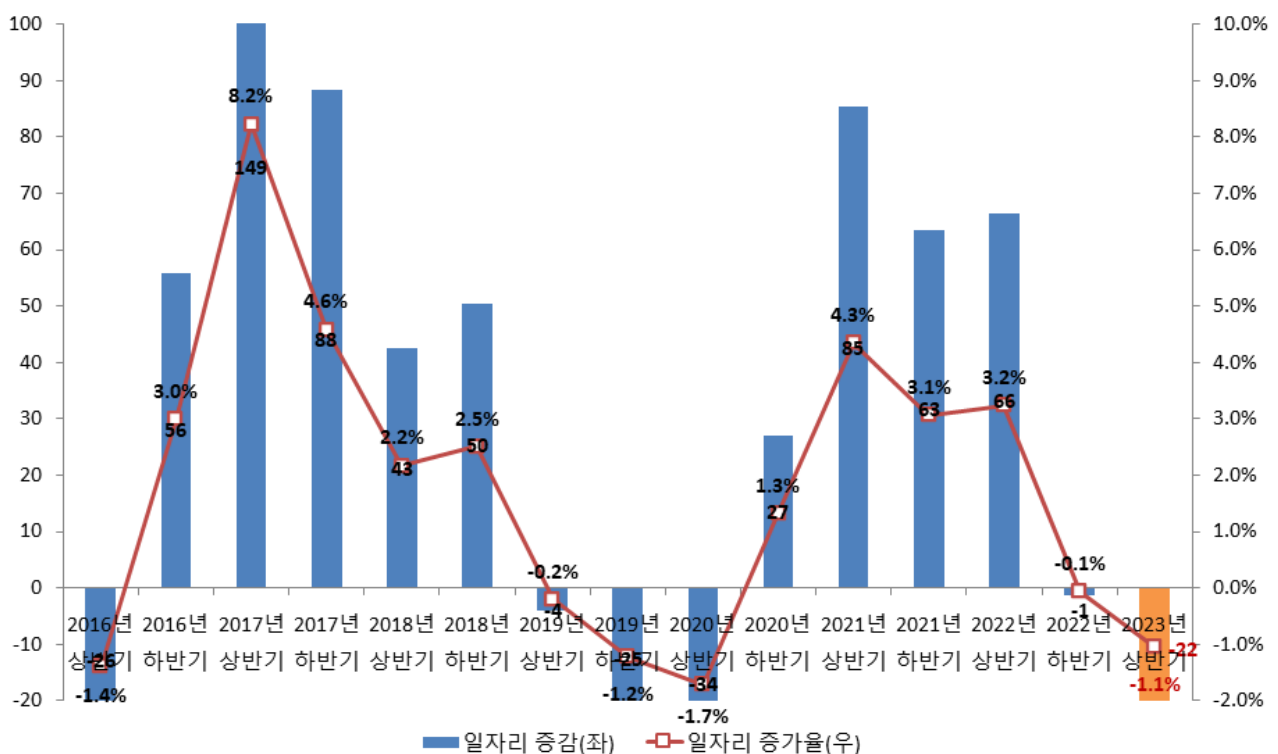
●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반면 공공 토목 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이 감소할 경우 축소될 것으로 예상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건설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0.2	-1.2	-1.7	1.3	4.3	3.1	3.2	-0.1	-1.1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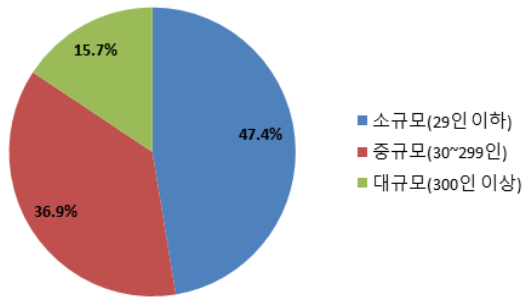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설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금융 및 보험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중개 업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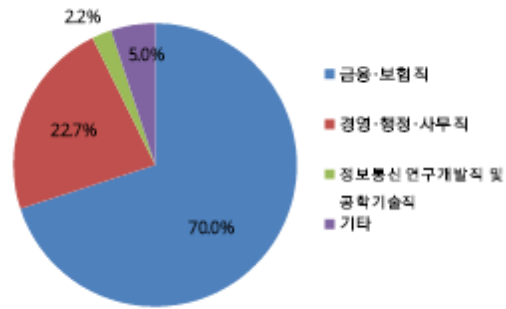
근로자 현황

<사업체 규모별 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구성>



자료)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 2022년 하반기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777천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28,320천 명)의 2.7%를 차지(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0.0%), 경영·행정·사무직(22.7%),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2%) 등으로 구성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규모는 2021년 하반기(797천 명)에 비해 2.5%, 20천 명 감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 고용이 증가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

구인·채용 현황

- 2022년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25.0천 명, 채용인원 21.5천 명으로 미충원 일자리 수는 3.5천 개
 - 금융 및 보험 업종의 미충원율은 14.0%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1%p 높은 수준이며 전 산업 평균(15.4%)과 비교하면 1.4%p 낮은 수준
 -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기타(30.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5.0%)',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17.2%)' 등으로 조사됨
 - 직종별로는 금융·보험직(71.8%), 경영·행정·사무직(21.4%),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3.7%) 순으로 구인비중이 높음
 - 지역별로 서울(46.7%), 경기(10.1%), 부산(6.5%) 순으로 구인인원 비중이 높음
 - 직무 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수준의 업무', '1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4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1년~2년 미만의 현장경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인원 비중이 23.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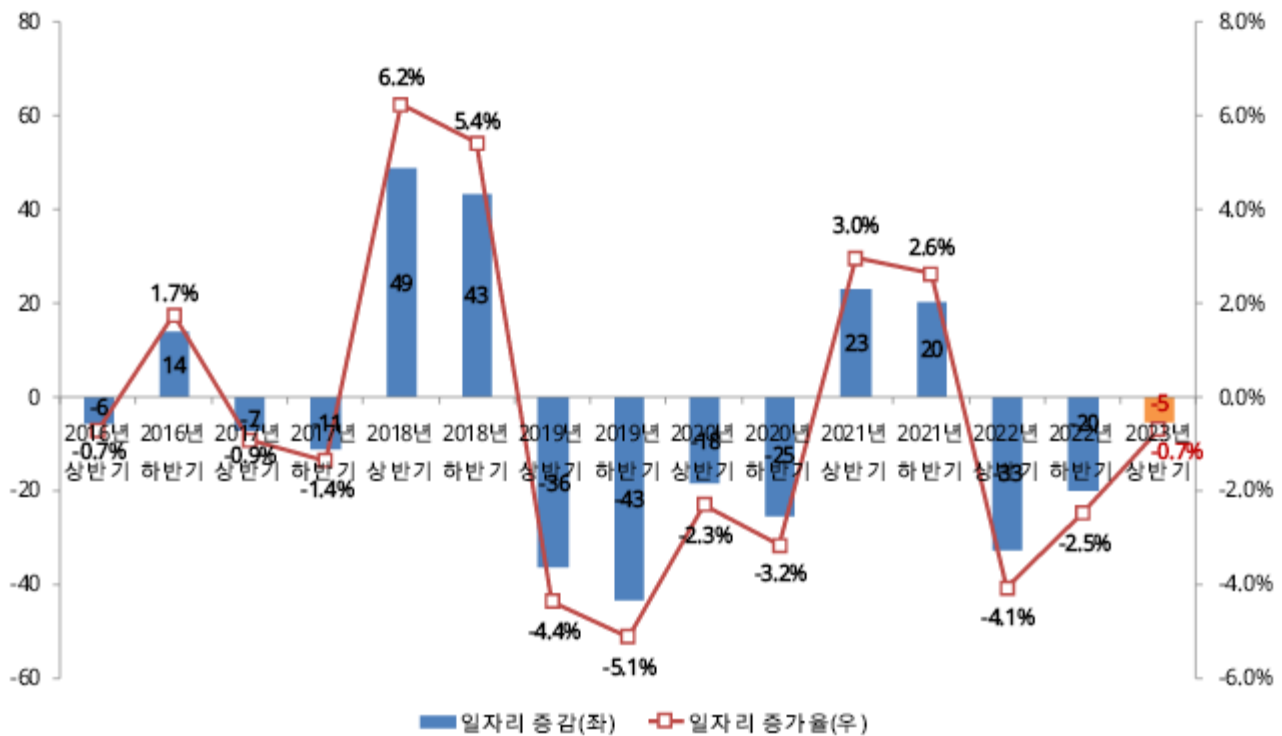
경기전망

- 은행업은 2023년 상반기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22년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의 증가로 은행업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2023년에는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순이자마진 상승폭 축소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세 약화, 대손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보험 산업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생명보험 산업은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손해보험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에도 경기 둔화로 인해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증가폭 축소로 카드 이용액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
- 증권 산업은 경기 둔화, 금리 상승, 증시 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유지)

금융 및 보험 업종 일자리 증감¹⁾ 추이

(단위 : 천 명, %)



일자리 증가율(%)²⁾

'19상반기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4.4	-5.1	-2.3	-3.2	3.0	2.6	-4.1	-2.5	-0.7

주1) 전년 동기 대비 고용증가인원

주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실적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망치는 한국고용정보원

- 2023년 상반기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이 증가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규모 사업체 등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용어정의>

▷ 일자리 증감(명) = 이번기 일자리 수 - 전년 동기 일자리 수

* 일자리 수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디스플레이 업종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준), 건설, 금융 및 보험 업종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 증가율(%) = $\frac{\text{이번기 일자리 증감}}{\text{전년 동기 일자리 수}} \times 100$

▷ 일자리 증가·유지·감소 판단 기준

- 일자리 증가율이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 미충원율(%) = $\frac{\text{미충원인원}}{\text{구인인원}} \times 100$
자료) 고용노동부(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망방법>

○ 본 전망은 각 업종별로 관련 지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거시시계열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전망 결과를 제시

-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상황,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자리 전망을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예상되지 않은 대외 충격 또는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런 변화는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제조업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기초로 하며, 디스플레이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업종별 일자리 전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산업생산량, 구인자수, 출하지수, 생산지수,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지수 등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형에 반영하여 전망을 실시함

* 전망 모형 등 자세한 전망방법은 본원에서 발간한 "주요 업종별 단기 일자리 전망방법(2015, 이시균, 강민정)" 보고서를 참조